



반산스님의 경전읽기

화엄경 ①

부처님의 설법 가운데, 육성에 가장 가깝다는 아함불교에서부터 고도로 발달한 대승화엄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것 하나 소중한 진리 아닌 것이 어디 있으리라는, 금주부터 화엄의 무궁한 광맥을 캐나가는 한 사람의 광부, 화엄의 바다를 가르는 뱃사공이 되어, 독자 여러분과 함께 하려 한다.

화엄에 마음을 두고 연구를 시작한 지도 벌써 십년여 세월이 훌쩍 지나갔다. 모든 경전의 서막은 참으로 감동적이다. 불자들의 제일의 애독서인 <금강경>의 첫머리는 부처님의 일상적인 탁발 모습에서 시작하고 있다. 평상심이 바로 도라는 말과 통한다고 볼 수 있으리라. 또 <능엄경>에서는 대중공양에 임하는 교단의 모습과 별칭(別稱)을 받은 젊은 비구가 겪을 수 있는 아주 흥미

을 연설하여 끝이 없었다.”(又以如來威神力故其善提樹가 恒出妙音하여 說種種法도대 無有盡極하니라), “그 때에 세존께서 이 자리에 계시사 일체법에서 최정각(最正覺)을 이루시었다.”(爾時世尊이 處於此座하사 於一切法에 成最正覺하시니라)

보리수나 장엄구, 정수리 광명에서 미묘한 음성이 흘러나와서 설법을 하고 있었다. 이런 환경에서 세존께서는 가장 바른 깨달음에 이르신 것이다. 참으로 감동적인 표현이 아닐 수 없다. 강원시절 목판본을 펼쳐놓고 뜻도 모르면서 한없이 이 구절을 반복해서 읽어보곤 했다.

몇 해 전 필자가 <화엄경정량소> 제1권의 번역을 마무리하고 대구 광공산의 한 노스님을 찾아뵈었더니 “화엄경 연구가들이 주로 십지(十地)나 입법계품(入法界品)을 주목하곤 하는데, 수좌는 세주품(世主品)에 는

장엄한 깨달음의 세계

세주품 “광명·보리수도 수준높은 설법”

진진한 이야기로 실마리를 찾고 있다. <법화경>에는 설법을 마친 부처님께서 조용히 삼매에 드시어 평소와는 다른 모습으로 양눈썹 사이에서 백호상광명(白毫相光明)을 방출하는 경정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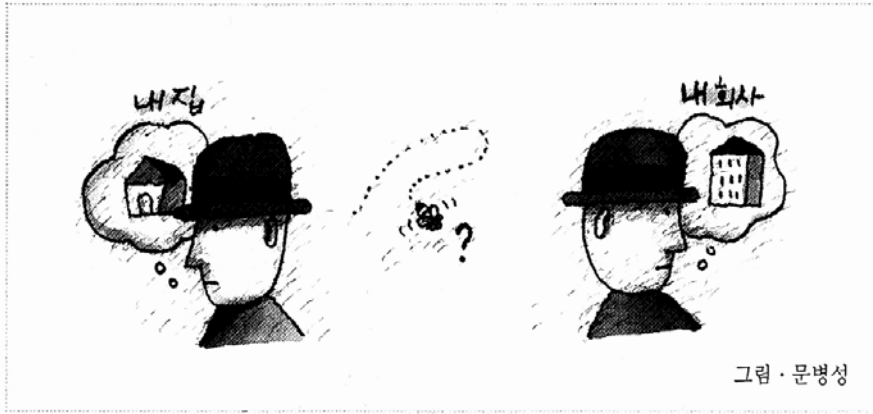
<화엄경(華嚴經)>에서는 어찌한가! “한 때에 부처님께서 마갈타국 아란야보리도랑(寂滅도랑)에 계시 적에 비로소 바른 깨달음을 이루시었다.”(一時에 佛이 在摩竭提國阿蘭若法菩提場中하사 始成正覺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는 도랑의 장엄을 밝힌다. “그 땅은 견고하여 금강으로 되어있나니, 가장 미묘한 보배 바퀴와 온갖 보배꽃과 청정한 마니(摩尼)로 장엄하여 모든 색상이 끝없이 나타났다.” 이른바 땅의 장엄, 보리수의 장엄, 궁전의 장엄, 사자좌의 장엄, 이런 네 가지를 통하여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 “또 여래의 위신력으로 그 보리수에서 항상 미묘한 음성이 흘러나와 가지가지 법문을 들었구나...” 하신 말씀이 지금도 생생하다. 화엄에서는 광명이 설법을 하고 공양구에서 설법이 흘러나온다. 그러나 화엄의 모든 설법은 세존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살이 대신하고 상수대중이 계승으로 설하는 것이다. 두 가지로 파악한다면 첫째는 위낙 수준 높은 설법인 때문이고, 둘째로 육성은 아니지만 깨달음 속에서 부처님의 가피를 통해 설법을 한다는 말이다.

“한 때에 부처님께서 마갈타국 아란야보리도랑(寂滅도랑)에 계시 적에 비로소 바른 깨달음을 이루시었다.”(一時에 佛이 在摩竭提國阿蘭若法菩提場中하사 始成正覺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는 도랑의 장엄을 밝힌다. “그 땅은 견고하여 금강으로 되어있나니, 가장 미묘한 보배 바퀴와 온갖 보배꽃과 청정한 마니(摩尼)로 장엄하여 모든 색상이 끝없이 나타났다.” 이른바 땅의 장엄, 보리수의 장엄, 궁전의 장엄, 사자좌의 장엄, 이런 네 가지를 통하여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 때에 부처님께서 마갈타국 아란야보리도랑(寂滅도랑)에 계시 적에 비로소 바른 깨달음을 이루시었다.”(一時에 佛이 在摩竭提國阿蘭若法菩提場中하사 始成正覺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는 도랑의 장엄을 밝힌다. “그 땅은 견고하여 금강으로 되어있나니, 가장 미묘한 보배 바퀴와 온갖 보배꽃과 청정한 마니(摩尼)로 장엄하여 모든 색상이 끝없이 나타났다.” 이른바 땅의 장엄, 보리수의 장엄, 궁전의 장엄, 사자좌의 장엄, 이런 네 가지를 통하여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 때에 부처님께서 마갈타국 아란야보리도랑(寂滅도랑)에 계시 적에 비로소 바른 깨달음을 이루시었다.”(一時에 佛이 在摩竭提國阿蘭若法菩提場中하사 始成正覺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는 도랑의 장엄을 밝힌다. “그 땅은 견고하여 금강으로 되어있나니, 가장 미묘한 보배 바퀴와 온갖 보배꽃과 청정한 마니(摩尼)로 장엄하여 모든 색상이 끝없이 나타났다.” 이른바 땅의 장엄, 보리수의 장엄, 궁전의 장엄, 사자좌의 장엄, 이런 네 가지를 통하여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림·문병성

자비심 가질때 영원히 산다

불교와 과학 <22>

이타주의 ②

119에 실려 간 적이 있었던 지독한 경험을 하기도 했다. 그렇게 벌이 사람에게는 위협적이지만 그 끝없는 집단 내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승고한 이타적 행위를 한 것이다. 벌의 침은 끝이 낚시바늘처럼 되어 있고 안쪽은 자신의 내장과 독액에 연결되어 있어서, 한번 쏘면 침이 빠지면 내장도 함께 빠져 벌은 죽고 만다. 동시에 독액의 냄새는 다른 벌들을 자극하여 다발적인 공격을 하게 하기도 한다.

이러한 일벌의 죽음은 개체의 입장에서 자살이지만 군집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군집을 지켜주고, 여왕벌의 번식에 도움이 되는 이타적인 결과를 낳는다. 생물체에서 진화의 기준은 자연선택(natural selection)이라는 기제를 따르지만 그 방향은 후손 번식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 그런데 일벌의 탄생 자체가 후손번식과 무관한 무정란의 탄생이며, 유전자 손실이 전혀 없어서, 일벌의 존재의미는 말 그대로 일하고 자신을 희생하는데 있을 뿐이다.

원개미의 경우는 더 심하다. 원개미들은 응고 분비샘에서 나온 노란 분비액을 복부 근처에 모아 놓고, 다른 적을 공격할 때 복부를 강하게 수축시켜 자신의 복부를 터뜨려서 액을 분출시키고 자신과 상대방을 응고하게 하여 같이 죽고 만다. 이런 원개미는 자신의 후손 번식을 포기하는 대신에 번식력이 뛰어난 자매 원개미를 보호함으로써 전체의 자손을 늘려 자신과 같은 희생용 원개미를 간접적으로 늘어나게 한다. 이와 같이 친족을 통한 간접적인 번식의 번식방식을 친족선택이라고 한다. 이런 친족선택 역시 생물계 자연선택 중의 하나인 훌륭한 선택 방식일 수 있다.

작은 새들은 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장치를 갖고 있지 못하다. 그저 매의 접근을 미리 알아차리고 도망가는 수가 최고다. 그런데 새들의 모든 새들이 매의 접근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다면 먹이를 제대로 찾아 먹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새들 중의 어떤 한 마리만이 일선 경계를 한다. 경계를 하는 새는 최전선에서 매가 오면 경고음을 내어 다른 새들이 미리 도망가도록

해준다. 그러나 경계를 맡은 새는 매에 가장 접근되어 있는 동시에 경고음의 소리까지 내느라 매에게 잡혀 먹을 확률이 매우 높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새는 이타적 행위를 한다.

앞서 말한 세 가지 이타적 사례는 실제로 자연 동물계에서 일반적으로 흔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특히 포유류와 같은 고등동물의 경우 이타적 행위는 드문 편이다. 원숭이의 일종인 비비는 암컷을 차지하기 위하여 공동의 회생을 통해서 대장 수컷에 대항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고여미의 모성애를 통한 이타적 행위는 다른 어떤 동물보다도 포유류에게 강하게 나타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대부분 자신의 직계 혈통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본다.

불행히도 사람의 경우는 더욱더 이타성을 찾기 어렵다. 부처님의 고행은 인간 군집의 극심한 이기성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부처님은 고행을 그만두기로 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기성이 윤회 시스템이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풀려질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세

간은 이타성보다는 이기성으로 꼭 차 있다는 것이 차가운 현실이다. 이런 인간사의 현실을 부정하고 세간 속에서 인간의 이상적인 이타성을 찾으려한다면 아마도 부처님은 고행을 계속해 나갔을 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러나 그는 고행을 멈추고 인간 세계 밑에 더 깊이 있는 윤회의 흐름을 보았던 것이다. 그 흐름은 아마도 일벌이나 병정 원개미의 이타성과도 맥이 닿아질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일벌이나 원개미가 최소한 어떤 명예욕의 의도를 갖고 이타적 행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훗날 보상을 바라거나 혹은 자기가 속한 소집단만의 이익을 위하여 집단구성원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이타적 행위는 궁극적인 이타주의가 아니다. 부처님은 어린 시절, 자비심을 발휘하여 자신의 친지만을 위하고 다른 이를 배척하는 숨겨진 이타심을 보면서 인간의 끝없는 욕심에 대하여 깊은 생각에 빠지기도 했었다. 그러나 후일 부처님은 의도조차 없는 자비심만이 영원한 삶의 세계로 건너가는 다리임을 깨닫게 되었다. 일본 유학생 이수현의 희생적인 죽음을 통해서 보여준 진정한 이타성은 단지 남을 위한 희생으로만 보는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수현의 죽음은 남을 위한 희생의 차원에서 더 나아가 그의 영원한 삶의 길과 연결되어 있음을 한번 더 생각해 본다.

최희정/상지대 교수(jdchoi@chiak.sangji.ac.kr)

영문불교사이트 2천개 '사이버 포교사' 각광

지구촌 불교 / 태국 인터넷 열풍

지금 태국의 인터넷 가상 공간에는 영어로 제작된 불교 관련 사이트들이 붐을 이루고 있다. 영국의 BBC와 태국의 방콕 포스트(Bangkok Post) 지에 따르면 지난해와 비교해 이들 사이트 수는 2천여 개로, 세 배 가량 증가했다. 또한 불자 네티즌이 이들 사이트를 방문하는 횟수 역시 두 배나 늘었다.

이들 사이트는 불교 교리와 수행 방법을 주요 콘텐츠로 삼고 있으며, 불자 네티즌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대화방을 개설해 놓고 있다. 이에 따라 태국의 불자들 외에도 세계 곳곳의 불자들은 서로의 불심을 북돋우고 정보를 나누는 장소로 선호하고 있다.

특히 방콕 포스트는 태국의 승단에서 인터넷 열풍에 깊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도 주목했다. 그동안 승단은 사찰을 방문하거나 출가를 결심하는 불자들이 급격히 줄어드는 데 적잖은 우려를 보여왔다.

태국에서 불교 사이트 개발업을 이끌고 있는 봉바니지(Vongwanji) 씨는 “우리는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며 “단지 인터넷에 그 가르침을 올리는데는 게 아니라, 불교를 모르는 사람에게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봉바니지 씨가 개발한 사이트 중에는 ‘태국 청년불자연합회’ (www.vbat.org) 등 주요 불교 사이트들이 많다. 이 사이트에는 하루 평균 100여 통의 이메일이 들어오고 있는데, 태국의 불자는 물론 여러 나라의 불자들이 두루 관심을 보이고 있다. 봉바니지 씨는 “사이트를 개발하는 일은 작은 노력이지만, 폴란드나 네덜란드의 사람에게까지 불심을 심는 결과를 낳아 환희심까지 맛보고 있다”고 말했다.

태국의 불자 중에는 다른 이유로 인터넷에 관심을 쏟는 사람도 있다. 국제참여불교연대의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술락 시바라사(Sulak Sivaraksa) 씨는 “오늘날 불교는 포교나 사회참여를 위한 새로운 매체를 찾아야 한다”며 “가장 현실 공간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이러한 요구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태국 불교계의 인터넷 열풍을 보도한 토니 윌탐(Tony Waltham) 방콕 포스트 기자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이들 사이트는 태국인의 일상에 녹아 있는 생생한 신행과 수행을 주로 다루고 있어, 작게는 태국 불교를 부흥시키고, 나아가 세계에 태국 불교를 알리는 창구가 되고 있다”며 긍정적 결론을 내렸다.

한편 영국의 BBC는 인터넷이 영적인 매체로서 적합한 지에 대해 태국 불자들의 의견을 다루었다. 이들에 따르면 인간과 인간이 만나는 것 자체가 가장 영적인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중심에는 세계불교대교구회(WFBC) 방콕 지부장을 맡고 있는 난타사른 세살라(Nantasarn Saealab) 씨가 있다. 그는 “인터넷이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종교를 지나치게 단순화시킬 수 있다”며 “초박살의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인터넷이 아니라 좋은 스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종욱 기자(gobaou@buddhapia.com)

四柱命理學의 限界를 克服시킨 六壬來情秘法

(易術活人天役者用)神示出刊

★래방인에게 던질 첫 말을, 초사(招辭)란에 송곳같이 적시(指示)해 놓았습니다.
★해당 국수(局數)에, 물어 오는 내용을 23가지 용건별(用件別)로 채출(採出)시켜 놓았습니다.

이 책은, 입문서가 아닌 천역자용으로서 즉시적 효용에 중점을 두어 난해한 육임을 따로 연구할 필요없이, 펼쳐 보기만하면 순간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놓았음은 물론, 四柱로는 판단이 안되는 각종 육임비법들을 요약·정리, 수록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월화관이나 사찰이나 무속점에 사람이 들어서거나 전화했거나, 어디를 가서 만났을 때, 출생년월일시를 묻지 않고도 그 시간만 보아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아 버릴 수 있게끔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를테면,

- 무슨일 때문에 왔는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이미 일어난 일인지, 앞으로 일어날 일인지, 언제 일어날 것인지, ●자기가 저지른 일인지, 남에게 당한 일인지, ●그 일이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첫마디를 어떻게 하면 적중할 것인지(이는 초사란에 적혀 있습니다.)

등에 대해 아주 쉽게, 들여다만 보면 알 수 있도록 指示해 놓아, 미리 그 情況을 지적함으로써 來人의 顏色와 자세를 바꾸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日常生活에서 간단하게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든 形而上學人으로서의 「카리스마」를 유지하고, 존경·귀의 받을 수 있는 비법들로는,

▶상담(相談)내용에 대해 즉시 답변(答辯)할 수 있는 항목들을 아래와 같이 채출(採出)시켜 놓았습니다.

- 희망사 · 승진사 · 구재사 · 시험사 · 구직사 · 결혼사 · 임신사 · 가정사 · 이주사 · 소송사 · 질병사 · 매매사 · 여행사 · 도난사 · 심인사 · 상면사 · 채용사 · 투자사 · 승부사 · 가격사 · 능경사 · 묘지사 · 기후사

- 악숙인이 울지, 안울지
- 돈이 될지 안될지, 된다면 언제 누구로부터 될지,
- 매매가 될지 안될지, 된다면 언제 될지,
- 임태기가 남아인지, 여아인지, 수술해 날 아이인지,
- 혼인이 성립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 선한 사람인지, 악성인인지,
- 부탁한 건이 이루어질 것인지, 속을 것인지,
- 이사 방위는 어느 쪽이 좋을 것인지,
- 계획사가 잘될 것인지,
- 찾아갈 사람이 집에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 치료될 수 있는 병인지, 못 고칠 병인지,
- 본심물을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어디에 있을지,
- 어느 방위로 도망가야만 안전할 것인지,
- 여행이 좋을 것인지, 나쁠 것인지,
- 승부사에 이길지, 질지,
- 온 사람을 재워야할지, 재워서는 안될 것인지,
- 상대가 나에게 이익이 될 사람인지, 해가 될 사람인지,
- 내일 비가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즉시 딱부러지게 말해줄 수 있도록 간추려 놓았습니다. 특히 본문에는 60甲子 매일 매시간별로 來人의 사정을 採出해 놓아, 만나거나 전화한 시간만 보면 그 사정이 환히 드러나게 되어있고, 居所를 떠나 부재중일때는 1시간 후든, 하루 후든, 일출 후든, 1년 후의 어느 때라도, 찾아온 사람의 來意 및 事情을 미리 날짜와 시간별로 예시해 놓을 수 있어, 가히 神通의 경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예사로운 책이 아니고, 五行 또는 法力과 神明의 경지를 유감 없이 과시할 수 있는 神靈 · 神示가 담겨진 책이므로, 일반인에게 弄斷되지 않도록 음양오행가 · 무속인 · 스님 등 活人專門天役者의 개인 주문만 받고 있습니다.



- 책 값 : 삼십오만원(W350,000)
- 책 질 : 영구 보관용으로 제작(책크기는 가로21cm×세로30cm) (흑색 표지 · 양장제본 · 금박 · 2000페이지 · 미세용지 · 음쇄인쇄)
- 입금처 : 한빛은행 066-475024-02-001 김 나 려
- 배 달 : 입금후 전화하시거나 우편한 송금하시면 즉시 택배 우송해 드립니다.
- 전 화 : (02)993-8680
- 주 소 : 서울시 강북구 수유3동 190-49호 일심빌딩 401호

도서출판 북문 대표 김 나 려
출판사등록번호 강북 제9-00076호
사업자등록번호 도봉 210-90-48989

책값이 他 易書에 비해 비싸기는 합니다만 천역자용이므로, 이책을 활용하여 획득 될 명성과 확신성취감에 비하면 매우 값이 될 것임을 주지해 드리는 바입니다. 내용이 실망되실 때는 즉시 대금을 반환하겠습니다. 본책 휴대용은, 본책을 구입하신 분에 한해 값50,000원에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비법들을 아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매일 · 시(每日 · 時)별로 적시하여 놓았지만, 그래도 혹, 의문되는 점이 있을 때는 전화하십시오. 저자인 鼓下子 曉史선생님과 연결하여 친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출판 북문

전 내용이 한글에 한문 도(파)가 달려 있어 누구라도 쉽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공부하는 책이 아니고, 보고 말하면 되는 책입니다.

매달 마지막 일요일 오전 10~17까지 총서명회를 갖고 있습니다. 참석하시면 이 책을 더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을 함께 보실 수 있는 요령이 녹화테이프 제작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주문하십시오.